

유승화 전북대 교수, 복합재료학회 CTRA 신진학술상

전북대학교 유승화 교수(양자시스템 공학과)가 최근 열린 2023년 한국복합 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CTRA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 교수는 국내외 복합 재료 관련 학술 부문에서 다수의 논문 제작 및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복합재료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유 교수는 학회 탄소·섬유재료 부문 총무이사와 학회지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자빔 조사를 통한 재료의 특성 개선 및 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체 혈관 내 삽입하는 '카테터' 표면 코팅 헤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코팅 기술을 개발해 화학공학 분야 세계 상위 2.45% 수준의 저명 학술지에 보고하는 등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냈다.

유 교수는 "나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연구원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점들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빤했다. "앞으로도 탄소·섬유, 복합재료 관련 연구에 더욱 매진해 방사선·재료 융합 학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개강식

전주기전대는 3일 교내 채플린관 PBL 강의실에서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개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현실 김용실장, 전주기전대학교 박광철 교수, 전주기전대학교 사회적 경제아동양성과 인상봉 교수 등이 참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용실장의 디지털경제시대 소상공인 현황 및 정책 소개강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은 지역 자체 연계를 통해 현장교육, 컨설팅의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저변 확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교육으로 대학 권역 내 소상공인 집적지 '찾아가는 온라인 진출 기초교육', e-커머스 필수교육 등 상담전담인력이 현장 교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 집중형태의 심층 컨설팅 지원이 진행된다.

특히 디지털마케팅 전략, ChatGPT 마케팅활용, 스마트 스토어 개설 운영, 제품상세분석, 사진촬영, 디자인 실습, e-커머스 사이트(아마존, 쿠팡 등) 활용한 제품판매 등도 이뤄진다. 이후 최종 성과별표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에게는 포상도 주진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고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세미나 진행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안정훈)은 최근 잔리관 109호에서 인문대 전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의 SOPI 플랫폼을 소개하며, 2023년 1학기 개설한 메타버스와 디지털 인문 청업 과목의 청업강좌 소개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ICCS센터장인 황요한(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전주대학교의 메타버스 ICC 월드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가능한 세계에서 재탄생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기본 틀만 제작해 두었지만 앞으로 해당 공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청자 지원을 제공하고 예술 디자인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청자들을 모아 활발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정훈(인문대 학장) 교수는 "전주대학교 인문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문화콘텐츠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기존의 글로벌 언어문화 능력에 더해 실감미디어, 메타버스, 인공지능까지 이우르는 진정한 인문학의 융합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양오봉 전북대 총장, 모교 남원 월락초 등 찾아 특강

양오봉 총장은 지난 2일 모교인 남원 월락초등학교와 남원 국악예술고를 찾아 꿈과 미래, 그리고 전북대학교'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특강을 통해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의 꿈 이야기와 자신이 꿈을 이룬 스토리 그리고 전북대가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전하며, 원대한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벌 케이츠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그리고 세계 영화계의 거장인 스티븐 스클립버그의 꿈과 성공 사례를 예를 들며 명확한 목표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1974년 월락초등학교에 다녔던 나 또한 태양에너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며 "여기에 민족까지 않고 전북대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전북에서 나오고 자란 학생들이 지금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꿈을 이룬 이들에게는 목표와 부단한 열정, 끈기, 새로운 길에서의 도전정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열정을 발휘해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전북대는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북대와 함께 큰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고 말을 끊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양평마을 최영희씨, 효행 유공 대통령 표창



남원시는 송동면 양평마을에 거주하는 최영희(74) 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6회 어버이날 효행 실천 유공 정부포상에서 효행부문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 최씨는 1974년 결혼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를 봉양하고 시동생들 뒷바리지하며 살아왔으며 시모가 혈압으로 쓰러졌을 때는 12년간 병원과 집에서 병수발을 하였고 현재는 훌로 계신 103세 시부를 49년째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있다.

특히 미리 미루에서 독거노인 세대를 수시로 방문하는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직접 농사지는 농산물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등 일상에서 효행 실천으로 터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사막한 현대사회에서 따뜻한 효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감동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최영희 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널리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허성준 아이앤지산업 대표, 정읍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아이엔지산업(주) 허성준 대표는 지난 1일 정읍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하였다.

충북 옥천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허 대표는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소식을 접하고 기부하게 되었다.

허 대표는 평소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랑의 친환경 나눔을 해왔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은 물론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후원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제공되는 담수품은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허성준 대표는 "평소 애정이 많은 정읍의 고향사랑기부제 소식을 듣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해 주신 모든 기부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리그 3연승 도전… 6일 서울중랑과 홈경기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3연승에 도전한다.

전주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10라운드 서울중랑축구단과 홈경기를 갖는다.

대구FC팀과 전북현대B팀 원정경기에서 각각 0대 3과 0대 1로 승리하며 리그 2연승 중이다.

특히,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전주는 이날 승리를 거두면 홈 첫 승과 리그 3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또한 3승 1무 4패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주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 승리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조직력을 앞세워 공격에서 김도현과 김태영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이고, 중원에서는 양태렬과 이영찬, 신윤호, 박광윤이 공격에 협력해 네울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김창수, 장경호, 이요셉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다.

골문은 최근 2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선보인 최진백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임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최근 2연승으로 선수단 분위기는 아주 좋다"면서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 홈경기인 만큼 막강화려로 승리를 거둬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유학생 문화교류 지원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3일 유학생을 돋는 비영리단체 굿윌센터(센터장 안웅현), 위드유센터(센터장 변호상), 전주글로벌문화센터(센터장 김태영)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생활 정착 지원 및 문화 교실 프로그램 운영 △호스트밀리 운영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 △기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활동 추진 등의 협약과 문화교류 협력 기관 현장을 전달했다.

최근 세 기관은 전주대학교 인근에 센터를 설립하고 기관별 지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탁구 교실·악기 교실·미술 교실·문화 체험활동·호스트밀리·외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현숙 센터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우리 지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유학생

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힘껏 돋는 것이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봉사자들의 도움은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마을로가는축제 '공동 추진위원회' 발족

추동미을, 서면미을, 요대미을 주민과 무주군 농촌활학과 및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추진위원회는 마을로가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27일 토요일, 6월 3일 토요일, 6월 4일 일요일 6월 5일 월요일 4회에 걸쳐 무주읍 대치리 소이니루 공원에서 열린다.

추진위원장인 이현승 사단법인 마을을잇는시름들 이사장은 작은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마을로가는축제는 2015년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아 관광객 몰이를 나설 예정이다.

/무주=고판호 기자

송천중고,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친환경' 행사

전주송천중고등학교(교장 장재원)에서 지난 2일 봉화산에서 정덕교 서장을 비롯한 청렴선도그 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위반 예방 및 청렴다짐을 위한 산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산행은 단단한 사무실을 떠나 활짝핀 철쭉을 바라보며 직원들간의 대화로 서로간의 어색함을 한꺼풀 벗겨내고,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등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리였다.

정덕교 서장은 "이번 행사가 청렴한 장수경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교촌치킨,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친환경' 행사

전주교촌중고등학교(교장 장재원)에서 3일 친환경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친환경'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활동원 위원의 주선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촌치킨 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후원자(이길순, 오은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교촌치킨 이수용 전북지사장은 "교촌치킨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